

“민음의 장막터를 넓혀가는 교회 (사 54:2)”

예 배 순 서

1부 08:30 AM
2부 11:00 AM

2021년 10월 24일 인도: 김정국 목사

참회의 기도 다 같 이
Prayer

* 예배의 부름 인 도 자
Call to Worship

* 성 시 교 독 교독문 60. 시편 139편 다 같 이
Responsive Reading (통 30)

* 신 앙 고 백 사 도 신 경 다 같 이
Confession

찬 양 다 같 이
Praise

기 도 정운권 장로
Prayer

성 경 봉 독 사도행전 13:42-52 인 도 자
Scripture

찬 양 다 같 이
Choir

말 씬 막을 수 없었던 일들 김정국 목사
Sermon

찬 송 208장 내 주의 나라와 다 같 이
Hymn (통 246장)

헌 금 다 같 이
Offering

헌 금 기 도 사 회 자
Prayer

알 림 사 회 자
Announcement

* 찬 송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다 같 이
Hymn (통 91장)

* 축 도 김정국 목사
Benediction

* 표는 다같이 일어서서

오늘의 말씀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의 티끌을 떨어 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사도행전 13:51-52)

말씀아침 새벽본문	25 (월)	26 (화)	27 (수)	28 (목)	29 (금)	30 (토)
	행 27-28	롬 1-2	롬 3-4	롬 5-6	롬 7-8	롬 9-10

알리는 말씀

본 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은 인사를 나눌 수 있도록 방문카드를 작성하셔서 안내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길 바라며, 예배 후 성도간의 교제도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금주의 모임

8:30 am 1부 예배
11:00 am 2부 예배
12:15 pm 정기연합제직회

주중일정

(월) 7:30 pm 시카고 아버지 합창단 연습
(화)~(금) 5:45 am 새벽기도
(수) 10:00 am 시카고 어머니 합창단 연습
8:00 pm 가스펠 프로젝트 인도자(온라인)
(목) 9:15 am 사역반 훈련(온라인)
(금) 8:00 pm 가스펠 프로젝트 구역III(온라인)

다음주 행사

8:30 am 1부 예배
11:00 am 2부 예배
12:30 pm 부서별 워크샵 전체모임(위원장과 회계 필히 참석)

기타사항

1. 교육부 Fall Festival이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2. 오늘 2부 예배 후 정기 연합제직회가 열립니다.
3. 헌당예배 초대장 발송작업을 도와주실 분은 예배 후 남아주시길 바랍니다.
4. 헌당예배시 가나안 장학금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주변에 추천할 분들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알려 주시길 바랍니다(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바랍니다).

교우동정

* 다음주 예배위원
-안내: 이재희 장로
-헌금: 정운권 장로
-2부 대표기도: 김대목 장로

지난 주 주일헌금

김진호 한윤정 임동규 이보람 이용건 이옥자 조현식 이상철 김정국 박지환 이보람 우지선 이수정 조현식 박지환 이용삼 김정국 박부명 이재희 전승평 정운권 최준택 광창우 김성진 김순자 김준영 김진호 김태중 방인덕 손상근 서재혁 이상철 이승철 이영일 이준세 이찬희 이홍자 장규성 정진원 조용현 채민병 이경희 박광성 박옥엽 박순희

교회의 일치

교회의 일치를 말함에 있어서 먼저 기억하여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교회의 일치가 단지 다툼과 분쟁이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일치는 영적인 일치로서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바로고 온전한 관계를 통하여 수립되는 일치이지, 서로의 이해관계의 일치를 따라 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닌 것입니다. 육적이고 조직적인 일치가 아니라, 영적인 일치이며 유기체적인 일치입니다. 이는 머리되신 그리스도께 접붙여진 신자 개개인의 하나님을 향한 지순의 사랑으로써 이루어지는 일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의 일치는 단지 이해관계를 고려한 편의적 사랑의 일치가 아니라 지순의 사랑의 일치이며 그 사랑을 통해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일치입니다.

이처럼 교회의 일치는 관계의 온전함과 일치입니다. 그것은 외형적이고 조직적인 일치가 아니라, 영적이고 유기적인 일치이며 사랑의 일치입니다. 그러한 참된 교회의 일치는 삼위 하나님과 교회, 그리고 신자 자신과 다른 지체들의 존재론적인 질서 안에서 수립되는 바른 관계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입니다. 교회의 일치는 진실한 참회를 통해 하나님께 용서 받은 신자가 다시 사랑으로써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반복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는 신자들 안에 있는 부패한 본성이 욕망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에서 이탈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내버려둔 채 일치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정말 교회에 필요한 일치가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과의 온전하고 바른 관계를 통하여 일치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기도를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나 너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기록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요17:11).

둘째로, 사람과의 온전한 관계입니다. 이것은 지체들 간의 끊임없는 용서와 사랑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신자 각 사람이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앞에 끊임없이 깨뜨려지고, 자기죽음을 경험하고, 또 그분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는 실천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이렇게 온전한 관계 속에서 만나고 즐거워하는 그 행복은 끊임 없는 용서의 실천과 사랑의 극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니 교회의 회원인 신자는 이러한 사랑과 헌신으로써 지체들을 세워야 합니다.

교회와 신자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진리를 따라서 자신을 온전하게 하고자 하는 유일한 동기는 사랑입니다. 신자는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지순의 사랑 때문에 온전함에 이르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접붙여진 신자의 연합은 영적인 것이며, 그리스도께 붙어있으나 자신들의 개별적인 본성을 가진 채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니 신자들의 일치는 획일적인 일치가 아니라 조화적으로 이루는 일치입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실제적인 일치는 신자 개개인이 끊임없이 자신의 구주이시며 머리이신 그리스도 앞에서 자기의 교만과 욕심을 버리는 자기 깨어짐을 통하여 실현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삼위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향한 지순의 사랑이 동기가 되어 온전함을 추구하는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매순간 진리를 통하여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발견하고 하나님께 뿐만 아니라 지체들에게 용서가 필요한 존재임을 깨닫고 자신의 욕심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희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을 통해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신자 개개인의 끊임없는 자기 죽음과 자기를 깨뜨려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철저한 희생과 섬김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각 성도의 성화의 온전한 정도는 이러한 희생적 사랑을 통하여 공동체적 차원에서 입증됩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일치는 용서와 사랑의 최종적인 열매라고 할 수 있으니, 이 일치를 통하여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세운 기관과는 다른 단체인을 드러내게 됩니다.

-김남준, <교회와 하나님의 사랑>중에서-

가정예배 10월 넷째 주

온 가족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특별한 시간

함께 기도 | 예배를 시작하며 함께 기도문을 읽습니다

저희를 거룩한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으로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 마음과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 | 가족 모두 잘 아는 다른 찬양을 해도 좋습니다

거룩한 성전에 거하시며

함께 읽기 | 아래 본문을 가족들이 돌아가며 읽습니다

출애굽기 36:8-38

함께 묵상 | 질문을 따라 각자 묵상한 내용을 나눕니다

1. 성막을 만드는 데 참여하는 사람들이 갖춰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8절; 36:1)

2. 단 한 절 뿐인 황금송아지를 만드는 과정(출32:4)과, 성막을 만드는 과정이 묘사된 오늘 말씀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함께 나눔 | 한 주간의 일들과 기도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기도문 |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출처: 성서유니온선교회>

CANAAN CHURCH

가나안교회는 선교·교육·봉사를 목표로 1976년 11월 28일 나일스 지역에 세워져, 말씀과 신앙, 믿음과 삶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교회로서, 성경을 바탕으로 복음의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장로교 전통의 독립교회입니다.

예배안내

주일예배 1부	오전 8:3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45
금요일예배	저녁 8:00
선교회모임	매월 둘째 주
구역모임	매월 셋째 주

교회학교

유치부	주일 오전 11:00
유년부	주일 오전 11:00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00
AWANA	주일 오후 1:00
금요모임	저녁 8:00

청년회

주일예배	오전 11:00
화요기도모임	저녁 8:00

부속

라인댄스반	목요일 오전 10:00
가나안한국학교	토요일 오전 9:30

섬기는 사람들

원로목사	이용삼	847-724-2456
담임목사	김정국	224-577-5229
전도사(유치)	이수정	224-587-3815
전도사(유년)	서줄리	224-612-1315
전도사(Youth)	김태중	224-727-9830
지휘자		1부
		2부
파송선교사	양선한 허목자(중동)	

찾아오는 길



1255 N. Milwaukee Ave., Glenview, IL 60025
TEL: 224-735-2346 www.canaan.org

CANAAN CHURCH

